

호적중초를 통해서 본 19~20세기 제주도 마을의 켤당관계*

김창민**

1. 연구목적

제주도의 친족은 한국의 일반적인 친족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재산과 제사의 균분 상속, 철저한 분가 등이 제주도 친족의 특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국의 일반적인 친족과 비교하여 가장 특징적인 차이는 제주도 친족이 켤당[眷黨]이라는 점이다. 제주도에서는 당내나 문중 개념보다 켤당 개념이 더 중요하게 사용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정할 때도 가장 기본적으로 켤당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켤당은 제주 문화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셈이다.

켤당의 중요성은 최재석 교수의 연구(1979)에 대한 전경수 교수의 비판(1983)에서 언급된 바 있으며 그 성격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 시작되었다(김창민 1992, 김혜숙 1999). 그러나 지금까지 켤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 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27-A00130).

** 전북대학교 교양학부

당에 대한 논의는 켄당의 범위와 성격 및 중요성에 제한되고 있을 뿐 사례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논의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켄당에 대한 논의가 기존의 한국 친족을 분석하는 틀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켄당은 영속집단이 아니라 일종의 범주¹⁾이기 때문에 집단을 분석하는 틀로는 범주로서 기능하는 켄당의 성격과 구조가 제대로 파악될 수 없다.

켄당을 분석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필자는 호적중초(戶籍中草)에 주목하고자 한다. 켄당은 혈통으로 연결된 부계친 뿐 아니라 혼인으로 연결된 모든 친척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육지부에서 사용하는 ‘집안’이나 ‘친척’과는 구별된다. ‘집안’은 부계친만을 의미하지만 켄당은 부계친 뿐 아니라 모변친이나 진외가친 그리고 처가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친척’은 부계친을 배제한 개념이지만 켄당은 부계친도 포함하는 개념(김창민 1992: 97-100)이기 때문이다. 즉, 켄당은 특정의 개인을 중심으로 그와 혈통 또는 혼인으로 이어진 모든 사람(김창민 1992: 97)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을 중심으로 친족을 바라보는 시각이며, 모든 개인은 서로 다른 범주의 켄당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 마을에서 켄당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을 중심으로 켄당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매우 복잡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켄당 분석을 위해서는 소규모 단위의 분석 대상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형성 초기의 마을은 가구와 인구가 적어서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켄당 분석의 유용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제주도에서 마을 단위로 보관되어 있는 호적중초는 조선 중·후기의 마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켄당 분석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호적중초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속한 한 마을의 호적중초이다. 이 마을에는 19세기 중엽인 1861년 호적중초를 시작으로 20세기 초인 1909년 호적중초까지 호적중초 12질이 보관

1) 집단과 범주에 대한 개념 구분은 Keesing(1975: 9-11)을 참고할 것.

되어 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분석된 적이 없는 이 호적중초는 마을 형성 초기부터 한일합방 이전까지의 마을 사정을 담고 있는 자료로서 마을의 형성 과정, 발전 과정, 인구 구성, 인구 이동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물론, 마을 구성원들의 혼인관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켤당 분석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마을 형성 초기인 동치(同治) 3년(서기 1864년)의 호적중초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호적중초는 관에서 관리하던 호적대상과 각 가구에서 보관하고 있던 호구단자를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서 마을에서 관리하던 호적이다.²⁾ 호적중초에는 호주 및 처의 부, 조부, 증조, 외조에 대한 이름과 직역을 담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인적 사항도 담고 있어 인구, 가구 및 혈통과 혼인 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즉, 호적중초를 분석하면 혈통과 혼인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마을 구성원들 사이의 친족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현재 마을에서의 참여관찰 자료와 연결시켜 분석하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혼인망과 켤당관계를 이용하였는지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분석은 현재의 문화를 역사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며 동시에 역사적 자료를 현재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된다.

호적중초는 민속자료로서 그리고 사회상을 담고 있는 자료로서 중요성이 인정되어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역사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주로 호적중초를 분석하였으며 신분과 직역, 혼인관계 등이 연구되었다(김동전 1995, 이창기 1999, 은기수 2002, 권오정 2003, 손문금 2003, 정수환 2003, 허원영 2003 등). 그러나 지금까지 호적중초에 대한 분석은 사료 분석에 제한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즉, 마을내의 사회관계와 호적중초를 연결시킨 맥락적 분석이 부족하여 호적중초가 작성되었던 당시의 구체적인 마을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2) 호적중초는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마을에서 작성한 후 관에 보내면 관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관인을 찍어 다시 마을에 돌려보내었다. 호적중초는 호와 인구를 확인하던 문서로서 징세와 징발에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호적중초 자료를 제주도의 친족인 켤당관계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하지는 못하였다.

이 연구는 호적중초를 통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제주도의 한 마을에서 켤당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그것이 어떤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자료로서 호적중초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한다. 둘째, 마을 내 켤당관계의 중심에는 누가 있으며 그는 어떤 목적에서 켤당관계를 형성하고 활용하였는지를 이해한다. 셋째, 켤당관계가 마을 내 권력 관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2. 조사 마을의 개요

이 연구의 대상은 서귀포시에 속한 달밭마을이다. 현재 이 마을은 밀감농사와 하우스를 이용한 꽃 재배, 그리고 한라봉과 하우스 밀감을 재배하는 농촌 마을로서 200여 가구에 인구 700명 정도가 살고 있다. 현재 이 마을은 고부 이씨, 밀양 박씨, 진주 강씨, 제주 고씨, 경주 김씨 등을 비롯하여 여러 성씨들이 거주하고 있는 혼성 마을이다. 마을이 형성된 이후 매우 빈번한 인구 이동 요인이 있어서 달밭마을의 인구와 가구는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그 구성도 다양해졌다. 1990년대 중반에는 마을에 아파트가 건설되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의 인구 유입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달밭마을은 인근의 마을에 비해 비교적 나중에 형성되었다³⁾. 호적중초를 통해서 보면 달밭마을은 1855년과 1861년 사이에 인근의 도순 마을에서 분동(分洞)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달밭마을에 보관된 호적중초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광서(光緒) 17년(서기 1891년)에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도순마을에는 함풍(咸豐) 11년(서기 1861년)에 작성된

3) 마을 형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창민(1995: 51-53)을 참고할 것.

달밭마을의 호적중초가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함풍 5년(1855년) 도순리 호적중초에는 함풍 11년 달밭마을 호적중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기재되어 있다. 달밭마을 호적중초가 도순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과 달밭마을 호적중초에 기록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이전에는 도순리 호적중초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달밭마을은 도순에서 분리 독립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1855년과 1861년 사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현재 달밭마을에서 가장 유력한 친족이라고 할 수 있는 고부 이씨들은 이보다 조금 이른 시기인 갑인년(甲寅年, 1851년)에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갑인년은 호적중초로 추론한 설촌 시기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호적중초로 추론한 설촌 시기와 갑인년 설촌 주장에는 약간의 시기 차이가 있지만 이는 갑인년을 도순에 살던 고부 이씨들 중 일부가 현재의 달밭마을 지경으로 이주한 시기로 보고 이들의 이주가 설촌의 계기로 작용하여 몇 년 뒤에 마을이 분리 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달밭마을이 비교적 늦게 형성된 것은 이 지역이 밭농사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달밭마을의 토지는 ‘흐렁’, ‘짐퍽’⁴⁾ 등 수분 함유량이 많은 토지로 분류되며 찰흙에 가까워 밭농사에는 부적합한 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마을 형성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해안 지대에서 어업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달밭마을에서는 어로활동과 함께 소금도 생산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중엽부터 논농사 기술이 보급되면서 달밭마을은 농사를 할 수 없는 황무지에서 농사에 적합한 지역으로 재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을 형성 초기에는 황무지를 개간하여 경지를 넓힐 수 있도록 노동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4) 흐렁과 짐퍽은 농경지의 일종이다. 두 가지 모두 토양 입자가 미세하고 수분 함유량이 많은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토양으로 된 논은 사람이나 말이 들어가면 밭을 빼는 것이 힘들 정도여서 토양을 경작하기가 쉽지 않다.

마을의 형성 초기부터 달밭마을은 여러 성씨들이 함께 거주하였다. 혈통에 바탕을 둔 유력한 친족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달밭마을에서는 혼인을 매개로 한 권당관계가 잘 발달하였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현재 달밭마을에는 고부 이씨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이 지배적인 혈통집단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달밭마을에는 고부 이씨를 비롯하여 밀양 박씨, 제주 고씨, 진주 강씨 등 여러 성씨들이 모여 살고 있으며 이들은 복잡한 혼인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권당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3. 자료의 성격

문헌자료를 통해 과거의 사회적 사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문헌 자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문헌의 성격이나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에 기초한 해석 역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호적중초는 그것이 작성된 시기의 인구와 가구 그리고 혼인 상황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다. 호적중초 자료가 가지는 성격과 한계를 올바르게 이해하여야만 이에 기초한 해석이 타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호적중초는 각 가구에서 작성하고 관리하던 호구단자와 관에서 작성하고 관리하던 호적대장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마을에서 작성하고 관리하던 호적 자료이다. 즉, 관에서는 주민들의 신분을 파악하고 인구의 징발과 공납을 부여하기 위하여 호적대장을 매 3년마다 작성하였다.⁵⁾ 이를 위하여 각 가구에서는 호구단자를 작성하여 마을에 제출하고 마을에서는 호구단자를 기초로 호적중초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

5) 호적대장은 1896년까지는 매 3년마다 작성하였으며, 1896년 이후에는 매년 작성하였다. 매 3년마다 작성하던 시기, 호적대장을 작성하는 해를 호적식년(戶籍式年)이라고 한다. 호적식년은 자년(子年), 묘년(卯年), 오년(午年), 유년(酉年)이다.

였다. 관에서는 호구단자와 호적중초를 기초로 하여 호적대장을 작성하였으며 호적중초에는 관인을 찍어 다시 마을로 내려 보내었으며 이것을 마을에서 보관하고 관리하였다.

호적중초와 호적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핵법(覈法)이라는 것으로서 호구의 실수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으로서 실제의 생활 단위 즉, 자연호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관법(寬法)이라는 것으로서 모든 가구와 인구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구와 호구를 참작하여 중앙에서 각 군현에 배정한 가구와 인구수에 맞추어 호적대장과 호적중초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핵법이 정확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호구조사가 부역과 공납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핵법으로 호적대장을 작성할 경우 부역이나 조세의 부담이 커지고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아전들의 이권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핵법보다는 관법에 의해 호적대장이 작성되었다(이창기 1999: 232-233 참고).

관법에 의해 호적중초와 호적대장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호적중초와 호적대장의 정보가 인위적인 개입으로 실제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군현에서 배정한 가구수와 인구수에 맞추어 호적중초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누락된 가구나 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사망한 사람이 여전히 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이런 왜곡은 성인이나 여성보다 남자 어린이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부역과 조세는 성인에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조사가 실시되었을 것이지만 당장은 조세와 부역의 부담이 없지만 장차 조세와 부역의 대상이 되는 남자 어린이의 경우에는 생략이 대규모로 일어나게 되었다.⁶⁾

달밭마을의 호적중초 역시 이러한 일반적인 호적중초 작성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구와 인구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6) 이런 경향은 덕수리의 호적중초를 분석한 이창기의 연구(1999: 242)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표 1〉 호적중초의 작성 연대와 가구 및 인구수

	가구수	인구	남	여
1861	16	105	42	61
1864	17	116	43	73
1867	22	140	55	85
1891	20	122	50	72
1894	27	172	68	104
1897	51	197	86	111
1898	49	198	86	112
1899	48	203	85	118
1900	48	206	93	113
1901	48	203	91	112
1903	47	195	89	104
1909	74	229	123	106

염두에 두고 호적중초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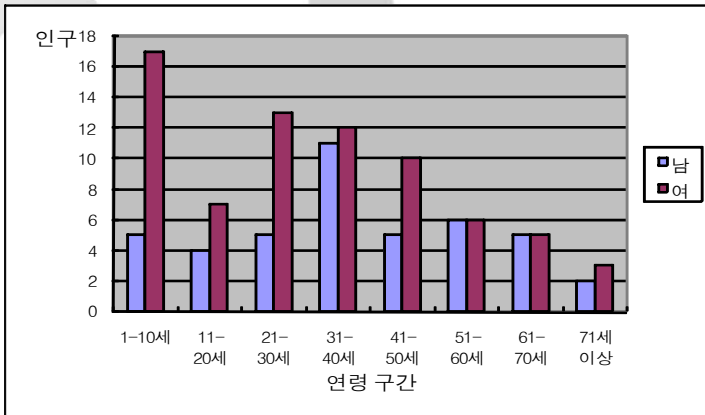
달밭마을 호적중초 중 가장 오래된 것은 함풍 11년(1861년) 호적중초이며 이후 11개의 호적중초 자료가 있다. 각 호적중초에 실린 가구수와 인구수를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을 통해서 보면 달밭마을의 호적중초는 1861년부터 1867년까지는 매 식년의 자료가 남아 있지만 1867년부터 1891년 사이의 자료는 멸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891년부터 1897년까지는 매 식년의 자료가 남아 있으며 이후에는 매년 호적중초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861년부터 1891년 사이에는 가구수와 인구수에서 큰 변화가 없지만 1891년과 1894년 사이에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있고, 1894년과 1897년 사이에는 가구의 급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891년과 1894년 사이에 인구가 급증한 것은 가구수가 20가구에서 27가구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호적중초를 통해서 보면 1891년과 1894년 사이에 2가구가 사라진 반면 새로 9가구가 등재되어 있다. 1894년에서 1897년 사이에는 가구수가 급증한 것은 가구, 즉 호의 기준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제주도의 호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주거를 같이 하면 하나의 호로 간주하였지만 이후에는 부모와 자녀가 주거를 같

이 하더라도 호를 나누어 계수하였다. 즉, 1896년에 호구조사 세칙이 변경되었는데, 이 때부터 호주의 부모나 자녀라도 거주를 따로 하면 분 적하게 되었다.⁷⁾ 이런 호의 계수 방식의 변화가 <표 1>에 나타난 것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인구학적 특성의 하나는 1903년까지 달밭마을에서 심각한 여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수가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록상 누락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동치 3년(1864년) 호적중초에 등재된 인구를 성별, 연령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면 여성의 연령별 인구 구성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모양을 보이지만 남성의 경우는 30대에서 가장 많고 1세에서 20대까지의 인구가 비정상적으로 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1~10세 사이의 남성 인구는 여성에 비해 극단적으로 적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림 1> 동치 3년(1864년)의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표

- 7) 1896년에 호구조사 규칙과 세칙을 통하여 호적대장 작성의 중요한 원칙들이 변경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호적대장 작성을 매 3년 간격으로 하던 것을 매년 하게 된 것과 5호를 하나의 통으로 구성하던 것을 10호로 변경한 것, 그리고 호의 기준을 실제 주거 단위로 변경한 것이다.

남성의 경우 30세 이하에서는 고의적인 누락이 광범위하게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호적중초를 기초로 인구와 가구를 분석할 경우에는 이런 고의적인 누락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동치 3년 호적중초의 표지는 “대정현 00리 동치 3년 정월 일 좌면 제4 갑자식 중초(大靜縣 00里 同治三年正月 日左面第四甲子式中草)”로 되어 있다. 호적중초가 작성된 마을의 이름과 작성 연대를 표시한 것이다. 마을은 기본적으로 통(統)과 호(戶)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개 호가 하나의 통을 구성하며, 마지막에 세 호 이상이 남으면 통을 구성하고 두 호 이하로 남으면 마지막 호에 포함시켰다. 달밭마을의 동치 3년 호적중초는 3통 17호로 구성되어 있다. 각 통에는 통수(統首)를 두었으며 각 통의 제1호에 해당하는 호주(戶主)가 통수를 맡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서 제1호의 호주가 여자면 제2호의 호주를 통수로 하였다.

호는 호주를 시작으로 호주의 처, 장남, 자부, 손자, 차남, 자남의 처, 손자, 첩, 혈연 동거인, 비혈연 동거인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중 호주와 호주의 처는 직역(職役)과 나이, 부, 조부, 증조부, 외조부의 이름과 본관이 기록되어 있으며, 나머지 구성원은 혼입한 여성의 경우 성씨와 연령, 그리고 부의 직역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구성원은 직역과 이름, 나이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호적중초에 기록된 거주자의 이름과 조상들의 이름을 서로 비교하면 혈통 관계와 혼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호적중초의 마지막 면에는 마을의 총 호수와 인구수가 기록되어 있다. 인구는 다시 장남정(壯男丁), 장녀정(壯女丁), 노남정(老男丁), 노녀정(老女丁), 아남정(兒男丁), 아녀정(兒女丁)로 분류되어서 그 수가 기록되어 있다.⁸⁾ 이 분류 기준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마을 구성원을 분류하

8) 동치 3년 호적중초에는 이 기준에 따라 장남정 28, 장여정 43, 노남정 7, 노여정 8, 아남정 8, 아여정 23으로 기록되어 있다. 연령별 인구수를 통하여 아정과 장정 그리고 노정을 분류하는 기준을 역추적하면 노정은 60세 이상부터, 장정은 17세 이상부

였다는 것은 장남정, 장녀정을 대상으로 징세와 징발을 하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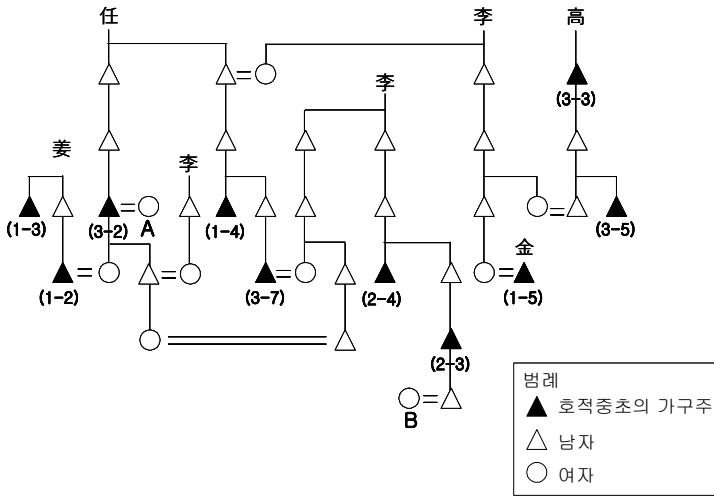
4. 권당과 마을 내 권력관계

전술한 바와 같이 호적중초는 호주와 배우자의 부, 조부, 증조부 그리고 외조부의 이름을 담고 있으며, 며느리의 경우 부의 이름을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이름들을 상호 비교하면 혼인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호적중초는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누락이 있었기 때문에 호적중초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혼인관계는 실제 혼인관계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조사 마을의 실제 혼인관계는 호적중초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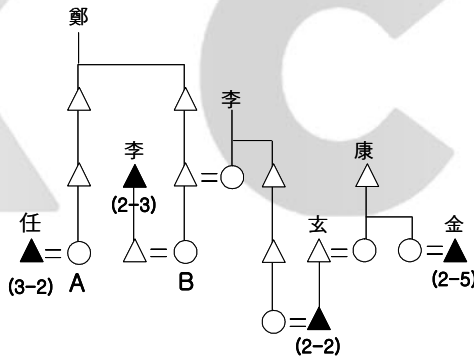
동치 3년인 1864년 달밭마을의 17호 중 12호는 혈통과 혼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이 맺고 있는 권당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2> 및 <그림 3>과 같다.

<그림 2>는 달밭마을 17가구 중 10가구가 혈통과 혼인관계에 의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3>은 4가구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2-3)과 (3-2)는 양 쪽에 모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매개로 하여 실제로는 17가구 중 12가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 된다. 이를 권당관계의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우선 <그림 2>에서 (3-2)와 (1-4) 그리고 (3-7)은 같은 혈통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호 권당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2)는 (3-2)의 사위로서 임씨의 권당에 해당하지만 (1-3)은 (3-2)와 사돈 관계에 있다. 제주도에서 권당과 사돈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로 설명되므로 (1-3)은 임씨의 권당이라고

터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추론은 기록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자료와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2〉 달밭마을의 권당관계 1



〈그림 3〉 달밭마을의 권당관계 2

할 수 없다. 한편 (2-4)와 (2-3)은 같은 혈통에 속하므로 상호 권당이다. 그리고 (3-7)과 (2-4)는 6촌 처남-매부 관계에 있으므로 상호 권당이다. 즉 이 관계에 의해 임씨와 이씨는 권당으로 맺어지게 된다. 또한 (3-3)과 (3-5)는 같은 혈통에 속하므로 상호 권당이며 (1-5)는 이씨의 사위로서 이씨의 권당 관계에 포함되며 (3-5)는 (1-5)의 처권당에 해당한다.

<그림 3>에서 (3-2)와 (2-3)은 서로 처켄당 관계이다. 그리고 (2-5)는 (2-2)의 이모부로서 켄당이다. (2-2)는 이씨의 사위로서 (2-3)과 켄당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3-2)와는 혼인 관계가 너무 멀어 켄당 관계라고 하기는 어렵다.⁹⁾

<그림 2>와 <그림 3>을 통해서 보면 켄당관계의 중심에 (3-2)와 (2-3)이 있다는 점과 이 두 가구는 서로 중첩된 혼인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2)는 풍천 임씨로서 1864년 호적중초에는 가구원이 11명으로 나타나 있었다. 한편 (2-3)은 고부 이씨며 가구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달밭마을에서 가장 많은 가구원을 가지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던 두 가구가 집중적인 혼인망으로 맺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 두 가구의 혼인관계는 중첩적이다. 우선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씨와 이씨는 4번의 혼인을 맺었다. 이 중 이씨의 딸을 임씨 이들에게 혼인시킨 경우가 3회였으며 한번은 임씨의 딸을 이씨의 아들에게 혼인시켰다. 그리고 1864년 당시 임씨의 핵심 인물이었던 (3-2)와 이씨의 핵심이었던 (2-3)의 아들은 6촌 동서지간이었다. 즉, <그림 2>의 A와 B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촌 자매간이었다. 이러한 중첩적인 혼인 관계를 통해 풍천 임씨와 고부 이씨는 매우 강한 결속력을 가진 켄당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풍천 임씨와 고부 이씨의 중첩된 켄당관계는 마을 형성 과정과 결부시켜 해석해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달밭마을의 형성 과정에서 도순리에 살던 고부 이씨들이 달밭 지경으로 이주한 것은 마을 설립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지금도 달밭마을에서는 고부 이씨들이 마을을 설촌한 성씨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들이 이주한 갑인년이 마

9) 경우에 따라 (3-2)와 (2-2)가 켄당 관계라고 주장될 수도 있다. 켄당 관계는 주관적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두 사람이 서로 켄당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켄당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켄당의 범위를 좁게 인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켄당의 범위를 넓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을 설립 년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마을의 중요한 풍수지리에 관한 설명도 대부분 고부 이씨 및 그들의 묘소와 연관되어 있다. 역사 및 역사에 대한 해석은 정치성을 내포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달밭마을 설촌과 관련된 이러한 담론은 고부 이씨들이 마을에서 가장 유력한 성씨로 자리 잡은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호적증초에 나타난 내용으로 본다면 고부 이씨들이 이주하기 이전에는 풍천 임씨가 달밭 지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씨였다. 풍천 임씨는 1864년 당시에 이미 3가구나 달밭 지경에 살고 있었으며(3-2, 1-4, 3-7) 가구원 수로 보아도 이들이 가장 유력한 성씨였으며 또 많은 수의 마을 주민을 차지하고 있었다. 고부 이씨들이 달밭 지경으로 이주하는 과정은 이미 (3-2)의 할아버지 세대에서 임씨와 이씨 사이에 맺어진 혼인관계를 비롯한 중첩된 혼인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밭 마을로 들어온 고부 이씨 중에서 (2-3)이 중심인물이었다. 그의 아들은 1864년 당시 39세로서 이미 (3-2)의 6촌 처제와 결혼하여 14살 된 아들을 두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2-3)의 아들 입장에서 보면 유력한 기존세력인 풍천 임씨(3-2)와 6촌 동서 사이로서 서로 켤당 이었다(<그림 2> 참고). 또한 (3-2)의 7촌조카인 (3-7)은 1864년 당시 54세로서 (2-3)의 7촌고모에 해당하는 사람과 혼인한 사이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고부 이씨들이 달밭 지경으로 이주하던 당시에 이미 풍천 임씨와 고부 이씨는 켤당관계였으며 이 켤당관계를 매개로 하여 고부 이씨들은 달밭 지경으로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부 이씨들이 이주한 이후 (3-2)의 아들은 다시 고부 이씨의 딸과 혼인하였으며, (3-2)의 손녀는 고부 이씨의 아들과 혼인하여 두 성씨 사이에 강력한 켤당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두 성씨 사이의 강한 켤당관계는 달밭마을에서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수단이 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미 가구 수와 가구원 수에서 다른 성씨들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이 두 성씨는 서로 강한 켤당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다른

성씨들과는 차별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풍천 임씨와 고부 이씨들이 매우 강력한 켤당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다른 성씨와 맺은 관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풍천 임씨는 (3-2)의 딸이 진주 강씨인 (1-2)와 혼인을 한 것¹⁰⁾을 제외하면 더 이상의 켤당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 반면 고부 이씨들은 달밭 지경으로 이주한 이후 다른 성씨들과 켤당관계를 활발하게 형성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부 이씨들은 김해 김씨인 (1-5)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 1864년 호적중초를 기준으로 (1-5)는 43세였으며 그의 처는 32세였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3살 된 아들이 있었다. 이는 두 사람의 혼인이 고부 이씨들의 이주 후에 일어난 것임을 보여준다. 이미 (1-5)는 제주 고씨인 (3-3) 및 (3-5)와 켤당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혼인으로 고부 이씨들은 켤당관계를 확대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부 이씨는 함덕 현씨와도 혼인을 하였다.¹¹⁾ 함덕 현씨 역시 김해 김씨인 (2-5)와 켤당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혼인을 통하여 고부 이씨들은 마을 내에서 켤당관계를 더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고부 이씨들은 달밭 지경으로 이주한 후 혼인을 통하여 켤당관계를 확장하였으며 결국 달밭 마을의 켤당관계는 고부 이씨를 중심으로 재편되게 되었다.

풍천 임씨와 고부 이씨 사이의 켤당관계망의 차이는 현재 달밭마을에서 풍천 임씨의 퇴조와 고부 이씨의 득세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1864년 당시 가장 유력한 성씨였던 풍천 임씨는 현재 달밭마을에서 3가구에 불과한 반면 고부 이씨들은 30여 호가 거주하면서 마을에서 가장

10) 이 혼인 당사자인 (1-2)와 그의 처의 나이는 각각 59세 및 49세였다. 이는 이 혼인이 이미 오래 전에 이루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11) 이 혼인 당사자인 (2-2)는 당시 36세였으며 그의 처인 고부 이씨 여자는 51세였다. 그리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고부 이씨 여자가 재혼을 한 것이라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3년 뒤 자료인 1897년의 호적중초에는 부인의 나이는 54세인 반면 남편의 나이는 47세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호적중초의 작성에서 나이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이후의 자료에서 이 가구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성씨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풍천 임씨들이 좁은 범위의 켤당관계를 형성한 반면 고부 이씨들은 매우 폭넓은 켤당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¹²⁾ 폭넓은 켤당관계를 형성한 고부 이씨들은 마을 내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었고 정치적, 정서적 유대도 폭넓게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¹³⁾

5. 맺음말

호적중초라는 단편적인 자료를 통하여 150여 년 전 마을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제약 조건이 많은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업은 마을의 현재 상황과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현지조사 자료로 보완되어야만 하는 일이다. 과거의 문헌 자료와 현재의 현지 연구 자료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때 과거 상황에 대한 해석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켤당은 제주도 친족의 핵심적인 문화 요소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호적중초에 나타난 혈통과 혼인관계를 이용하여 마을에서 켤당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그것이 가지는 문화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달밭마을은 1855년과 1861년 사이에 인근의 도순리에서 분리되어

12) 물론 특정 성씨의 성쇠는 한 가지 원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일제 시대의 인구 이동, 4·3의 피해 상황과 그 영향, 1960년대 이후의 이촌 현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켤당관계의 양과 질이 마을 내 세력의 기반이 되었고, 전술한 요인들과 더불어 성씨의 성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3) 일제 시대 이후 달밭마을의 이장 선출 과정을 보면 고부 이씨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호적중초의 마지막 자료인 1909년의 경우 74가구 중 9가구가 고부 이씨였지만 1948년 이후 이장을 한 32명 중 8명이 고부 이씨였다. 이는 고부 이씨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상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인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이장 선출 비율은 이들의 정치적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근거에는 폭넓은 켤당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설립되었다. 이전부터 달밭마을 일대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 당시에 독립된 마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도순리에 거주하던 고부 이씨들의 일부가 달밭마을 지경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이다. 고부 이씨들은 당시 달밭 지경에서 가장 위세가 있었던 풍천 임씨들과 권당관계에 있었으며 이 관계망이 고부 이씨들의 정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고부 이씨들은 권당관계를 새로운 마을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후 고부 이씨들은 풍천 임씨들과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었을 뿐 아니라 다른 성씨들과도 적극적으로 권당관계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달밭마을의 권당관계는 고부 이씨들을 중심으로 재편되게 되었고, 마을 주민 대부분이 이 권당관계망에 포함되게 되었다.

고부 이씨들을 중심으로 한 권당관계는 마을의 사회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권당관계는 노동력 동원이나 사회적 교환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었고 마을 내에서 정신적 유대와 정치적 지지를 위한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권당관계를 중첩적이고 강하게 가진 사람은 사회적 위세를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권당관계망의 중심에 있었던 고부 이씨들이 달밭마을에서 중심 되는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고부 이씨들이 이주하기 이전까지 가장 사회적 위세가 높았던 풍천 임씨들은 권당관계망의 중심에서 벗어나면서 결국 주변적인 지위로 전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권당은 단순히 혈통과 혼인망으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다. 권당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정치적 연대를 위한 자원의 역할을 한다. 토지를 비롯한 경제적 요인들이 정치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하는 제주도에서 인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권당관계는 유력한 정치 자원으로서 기능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권당관계를 활용하는 능력에 의해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권력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논문투고일(2009년 10월 9일), 논문심사일(2009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2009년 12월 25일)

참고문헌

권오정

- 2003 “19세기 제주도 촌락의 촌락내혼률과 촌락내 혼인관계 연구”, 『제주도연구』 23.

김동전

- 1995 “18·19세기 제주도의 신분구조 연구-대정리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창민

- 1992 “범주로서의 친족 : 제주도의 권당”, 『한국문화인류학』 24.

김혜숙

- 1999 『제주도 가족과 권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손문금

- 2003 “19세기 제주도 사계리 호적중초에 나타난 호주승계의 의미”, 『제주도연구』 23.

은기수

- 2002 “19세기 전반기 제주사회의 신분과 혼인 : 사계리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제주학회 제22차 전국학술대회논문집』, 제주학회.

이창기

- 1999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출판부.

전경수

- 1983 “서평: 제주도의 친족조직”, 『진단학보』 5.

정수환

- 2003 “19세기 가솔의 성격과 제주 사회”, 『제주도연구』 23.

최재석

- 1979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허원영

- 2003 “19세기 제주도 호적에 나타난 직역변동과 부세운영”, 『제주도연

구』 23.

Keesing, Roger

1975 *Kin Groups and Social Structure*, Holt, Rinehart and Winston.

K C I

〈Key concepts〉: Kwendang, Hojukjungcho, Jeju Islands, Marriage Network,
Power Relations

Kwendang (Descent and Marriage Network) Relations of 19-20C Jeju Islanders

Kim, Chang Min*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Kwendang'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ultural elements of Jeju Islands. To achieve this aim, I apply 'Hojukjungcho' which is written materials including name, title, age, spouses and other demographic data of villagers. Analyzing 'Hojukjungcho,' I have traced household size, family pattern, marriage network, age gap of spouses, etc. And I found strong kindred network, so called 'Kwendang,' which is made by descent and marriage. Kwendang has the role of power resources. Most powerful family has most complicated and strong 'Kwendang' relation and marginal family has simple and weak 'Kwendang' relation. In this context 'Kwendang' is not only marriage relation but power resources which has the role of social positions and political alliances.

* Jeonju Univ.